Bayer, 화학 · 폴리머 분사 가시화

NewCo, 첨가제 · 폴리머 및 수지사업 주력 ... 제약부문은 독자적 행보

Bayer Group이 2002년 이후 지속해온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해 앞으로는 Life Science, 농약, 그리고 소재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고 화학 및 폴리머 사업은 독립법인 NewCo(가칭)로 분리시킬 계획이다.

Bayer은 6월14일부터 17일까지 독일 Cologne에서 <K 2004>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세계 및 아시아 언론인들을 초청해 Bayer의 사업계획과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핵심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앞서 Bayer Group은 2003년 11월 H.C. 스타아크와 올프발스로데를 제외한 Bayer Chemicals을 일부 폴리머 사업부와 함께 가칭 NewCo라는 새로운 회사로 별로 설립하며 늦어도 2005년 초반까지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것을 내용을 골자로 한 경영이사회의 계획을 승인했다.

Bayer Chemicals 소속이었던 H.C. 스타아크와 올프발스로데는 MaterialScience 사업부에 속하게 된다.

NewCo 회장에는 현재 Bayer Polymer 경영위원회 회원이자 아시아 지역 총 책임자인 악셀 클라우스 하이트만 박사(45)가 선임됐다.

NewCo는 매출 56억유로, 임직원 2만여명, 그리고 기초화학, 특수화학, 정밀화학, 폴리머 분야에 걸쳐 5000여개의 방대한 제품군을 가진 화학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약품과 농약 제조에 필요한 중간재, 방부제 제제, 가죽, 제지, 의류산업에 필요한 화학제품, 수지 사업에 쓰이는 이온교환제, 콘크리트나 플라스틱의 컬러링을 위한 무기안료, 방염제나 가소제를 만들기 위한 폴리머 첨가제, 고무와 타이어산업에 쓰이는 고무화합물, ABS와 반결정성 플라스틱 수지(Semi-Crystalline Thermoplastics) 등을 세계 20여개국 약 40사에서 생산·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Bayer Group은 구조조정 후 Bayer HealthCare, Bayer CropScience, 그리고 Bayer MaterialScience의 3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특화된 시장을 선도한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이미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종자 사업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Bayer CropScience는 성장 가속화와 함께 환경과학(Environmental Science) 부문에서 가정, 원예용 해충제의 사업의 지위를 확고히 할 방침이다.

Bayer MaterialScience는 PU(Polyurethane), PC(Polycarbonate), 코팅제에 주력해 아시아 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플라스틱 및 코팅제 분야에 전력을 기울이며, 특히 중국에 새로운 생산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한편, 4일 일정으로 열리는 <K 2004> 컨퍼런스에서 Bayer는 <Vision Works: 수익성 확보를 위한 로드맵>과 <체계적인 혁신: 목표지향적 접근 - Intelligent Marketing>라는 주제로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BayKomm Communication Center, KU Applications Development Center 방문과 Cologne 지역 및 라인강 관광을 주체한다.

한편, 화학경제연구원(CMRI)에서는 서경선 상무가 6월 12-17일 독일을 방문해 Bayer Material Science의 Hagen Noerenberge 박사와 Iran Paterson 씨 등과 함께 Bayer의 수익성 확보와 마케팅 목표 등에 대해 논의한다.

<화학저널 2004/06/15>